

ATOPI 아토피란?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는 물·공기·음식이나 주변 생활용품 등에서 나오는 유해한 화학물질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토피 질환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생활 전반에 걸쳐 생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와 초록별 지구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토피와 환경요인

- 의·식·주 생활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합성화학물질
- 농약, 방사능, 중금속 등에 오염된 먹거리
- 물 오염, 땅 오염, 대기 오염 등 환경오염



여성환경연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태적인 대안을
만들고 실천합니다.

여성환경연대 아토피 프로그램

- 풀무원과 함께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 지역 보건소와 함께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
- 아토피 교육전문가 양성과정/강사모임 운영
- 어린이 유해화학물질 ZERO 가이드북, 어린이용 지침서 제작 등 아토피 교재/교구 콘텐츠 개발
- 가정관리 체크리스트 배포 및 모니터링
- 저소득층 아토피 어린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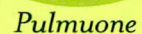
강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goodbyeatopy.or.kr

블로그 <http://goodbyeatopy.tistory.com>



(110-761)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8호
전화 02-722-7944 팩스 02-723-7215
메일 kwen@ecofem.or.kr
후원 외환 630-004757-375 여성환경연대



풀무원 두부, 나물 제품 패키지에 '굿바이 아토피!' 캠페인 마크를 부착하고 제품 매출액의 0.1퍼센트를 아토피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굿바이
아토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토피없는
학교만들기



Pulmuone

2007년부터 여성환경연대와 풀무원은
아토피 없는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꽃바이 아토피!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중심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어린 시절 큰 영향을 받는
학교에서 선생님, 학부모가 지혜를 모아 아토피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역사회가 같이 돌보는 아토피 어린이

지역에 있는 보건소, 의료기관, NGO가 함께 각자가 가진 자
원을 내어 마을에 있는 아토피 어린이를 돌봅니다.



친환경생활습관의 실천

어릴적부터 환경친화적 생활습관을 기르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꽃바이 아토피! 프로그램 소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태적인 생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초등학생 아토피/환경교육 진행
- 부모/교사 아토피교육 진행
- 아토피 특별반 운영
- 유기농 생산지 견학
- 친환경 급식지원
-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 전교생 아토피검진
- 아토피 실태 및 인식 설문조사

꽃바이 아토피! 여름 캠프

2박 3일간의 느리고 여유로운 자연 체험
- 아토피 캠프

생활 전반에 들어와 있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진행합니다.

로하스 텃밭 가꾸기

학교 내에 로하스 텃밭을 조성하고, 텃밭 교육을 진행하여
아이들이 먹는 작물을 손수 가꾸고 관찰하게 합니다.

- 농작물 심기 및 수확
- 요리실습 등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로 교육 진행

꽃바이 아토피! 캠페인을 함께한 학교

- 2007 서울신구로초등학교
2008 서울면동초등학교, 서울기양초등학교, 서울누원초등학교
2009 서울기양초등학교, 서울누원초등학교, 서울면동초등학교,
서울오류초등학교, 서울운수초등학교

